

또 3약? 천만에!...반전 꿈꾸는 하위권 3팀

BNK 썸, 단타스+구슬·진안 조합 기대
KEB하나, 높이 열세 '빠른농구'로 돌파
신한, 김단비·이경은 훈련량 부족 관련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가 19일 개막해 팀당 30경기 규모의 정규리그를 시작

2018~2019시즌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는 흥미가 반감됐다. 초기에 플레이오프(PO) 진출 3팀이 결정되는 등 2강-1중-3약의 판도가 확고했다. 새 시즌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지만 지난 시즌 PO 진출에 실패한 부산 BNK 썸, 부천 KEB하나은행, 인천 신한은행의 재도약 여부가 관건이다. 3팀은 나란히 감독을 교체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상위권으로 예상되는 청주 KB스타즈, 용인 삼성생명, 아산 우리은행은 시즌 초반 핵심 선수들의 부상 변수가 있다. 좋은 스타트를 끊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즌 하위권 3팀 가운데 2강-1중-3약의 판도를 바꿀 주인공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새롭게 태어난 BNK 썸

| 구단 | IN | OUT |
|------------|--|--|
| 용인 삼성생명 | 김한비(FA 보상) | 최화진(FA) 한여름(은퇴) 황미우(트레이드) |
| 인천 신한은행 | 김이슬(FA) 김수연, 한채진, 임주리, 황미우(이상 트레이드) | 강계리(FA 보상) 김규희, 김형경(이상 임의탈퇴) 곽주영, 윤미지, 양지영(이상 은퇴) |
| 아산 우리은행 | - | 정금진(웨이버) 임영희, 이선영(이상 은퇴) |
| 부산 BNK 썸 | 김시은(임의탈퇴 복귀) | 한채진(트레이드) 조은주(은퇴) |
| 청주 KB스타즈 | 최화진(FA) | 김수연, 임주리(트레이드) 김한비(FA 보상) 정미란(은퇴) |
| 부천 KEB하나은행 | 강계리(FA 보상) | 김이슬(FA) 서수빈(웨이버) 장유영(은퇴) |

지난 시즌 정규리그 4위 BNK 썸은 비시즌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시즌은 WKBL의 위탁 운영으로 소화했다. 새로운 모기업이 등장해 선수단 전체가 안정감을 찾았다. 코칭스태프는 유영주 감독, 양지희 코치, 최윤아 코치 등 전원 여성으로 꾸렸다. 선수 변화는 많지 않다. 베테랑 한채진이 이적하고, 조은주가 은퇴하면서 젊은 선수 위주로 재편됐다. 전력 보강은 임의탈퇴였던 김시은의 복귀가 유일하다. 외국인 선수는 전체 1순위로 지난 시즌 팀과 함께 한 다미리스 단타스다. 외국인선수 중 가장 좋다는 평가다. 구슬, 진안, 안혜지, 이소희 등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다는 약점도 있다. 연패 등 팀의 위기 상황이나 박빙의 승부를

이겨낼 힘을 보여줘야 한다. 신생팀답게 패기와 스피드를 주무기로 삼는다.

●해묵은 높이의 과제 안고 있는 KEB하나

지난 시즌 5위 KEB하나은행의 고민은 늘 같다. 높이의 열세가 매 시즌 팀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높이를 만회할만한 국내선수 보강은 없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신한은행으로 이적한 가드 김이슬의 보상선수로 같은 포지션의 강계리를 데려왔다. 외국인 선수는 전체 3순위로 마이사하인스-알렌을 선택했다. 188cm의 포워드 자원이지만 KEB하나은행에서는 골밑까지 맡아야 한다. 팀 합류가 늦은 부분은 아쉽다. 최근까지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챔피언결정전을 뛰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

출 시간이 적었다. 국내 골밑 자원으로 파워가 좋은 백지은과 부상으로 한 시즌을 쉬고 돌아온 이하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혼재 신임 감독은 빠른 농구와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팀을 지휘하고 있다.

●재창단 수준의 변화 신한은행

지난 시즌 최하위 신한은행은 올해 여름 가장 바빴던 팀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급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선수 변화는 6개 구단 중 가장 많다. 주축선수 곽주영, 윤미지가 나란히 은퇴했다. 식스맨급 양지영, 김규희는 임의탈퇴 됐다. FA로 김이슬을 데려왔고, 트레이드를 통해 김수연, 한채진, 임주리, 황미우를 영입했다. 포지션별로 고르게 보강됐다. 그러나 비시즌 부상 변수가 있었다. 전체 2순위로 선발한 외국인선수 엘라나 스미스의 부상으로 일시 대체한 비키 바흐로 시즌 개막을 맞는다. 국내선수도 김단비와 이경은이 부상 회복으로 훈련량이 적었다. 유승희, 김아름은 부상이 심해 정규리그 출전이 사실상 힘들다. 가용인원이 부족하다. 변화가 많아 팀워크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시즌 초반을 잘 넘겨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임성재 아버지 인터뷰



임성재(가운데)가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나인브릿지에서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왕 트로피를 받은 뒤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 최초 수상이다. 사진제공 | JNA골프

“장난감 골프채 갖고 놀던 아들이 PGA 신인왕 돼 너무 자랑스럽다”

한국 골프의 새 역사를 쓴 임성재(21·CJ대한통운)가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아들의 듩직한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2살 때 장난감 골프채를 갖고 놀던 녀석이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이 됐다.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뿌듯해했다.

임성재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나인브릿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PGA 투어 타이 보타우 국제부사장으로부터 2018~2019시즌 신인왕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의 신인왕이다.

아들과 트로피를 함께 들고 감격을 누린 아버지 임지택 씨(54)는 “사실 미국으로 떠나면서 신인왕은 생각지도 않았다. 2018년 2부투어를 땀 때도 1부투어 진출보다는 2부투어 잔류가 우선 목표였다”면서 “그런데 (임)성재가 2부투어에서 올해의 선수상과 삼국왕, 신인왕을 휩쓸더니 1부투어에서도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차기 시즌 시드 획득에서 투어 챔피언십 진출, 신인왕 등극으로 점차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이어 “정주에서 일을 할 때 생재를 낳았고, 제주도도 거쳐를 옮긴 뒤부터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켰다”면서 “생재는 겨우 걸음마를 떼자마자 장난감 골프채를 갖고 놀았다. 이어 6살 즈음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천안에서 주니어 시절을 보냈다”고 아들의 성장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시즌 아들과 함께 미국 전역을 돌았던 임 씨는 앞으로 “향후 4~5년간은 생재와 함께 투어 생활을 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빨리 배우자를 만나게 해 독립적으로 뛰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부산 KT엔 단신 용병이 있다?

허훈, 외인못지않은 존재감 팀에 활기
“팀 늦게 합류해 단신 용병 별명 얻어”



국내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개막 이전

외인 제도에 변화를 줬다. 지난 시즌에는 장신 200cm이하·단신186cm이하로 신장 제한을 두면서 186cm이하의 단신 가드가 많이 유입됐다. 올 시즌에는 신장제한이 폐지되면서 단신가드 수가 대폭 줄었다. 고양 오리온의 조던 하워드(179cm), 인천 전자랜드의 새년 쇼터(186cm)뿐이다.

부산 KT는 바이런 멀린스(213cm)와 윌리 쏘튼(203cm)을 영입해 시즌을 맞았다. 지난 시즌 제공권 싸움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두 명 모두 2미터가 넘는 선수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KT선수들은 “우리 팀에 단신 용병이 있다”고 한다. 외인 2명이 장신인데 단신이 또 있다? 바로 팀의 주축 포인트가드 허훈(25)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허훈은 개막 이전 연습경기 때 멀린스, 쏘튼보다 더 높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주 공격 옵션으로 활약해 기대감을 모았다. KT 주장 김영환(35)은 시즌 개막 이전 “(허)훈이가 농구월드컵을 다녀오고 더 좋아진 것 같다. 자신감도 많이 붙어서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팀 동료인 김민욱(30)은 “훈이가 대표팀 일정 소화하느라 멀린스, 쏘튼 보다도 늦게 팀에 합류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단신이 용병 왔다’며 농담을 하고는 했다”며 웃었다.

허훈은 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개막 후 4경기에서 평균 13.0점·3.5리바운드·7.5어시스트·1.3스틸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10일 고양 오리온과의 원정경기에서는 15점·11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에 승리(90-87)를 안기기도 했다. 시즌 초반이지만, 7.5어시스트는 리그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팀 내에서 외국인수만큼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데뷔 후 3번째 시즌을 맞아 더 발전된 기량으로 팬들 앞에 나타난 허훈은 올 시즌 KT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부산 KT 허훈(왼쪽)은 팀 내에서 ‘단신 용병’으로 불린다. 어시스트는 물론 득점과 리바운드 등 다방면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 KBL



캡카 “타이틀 방어 당연하죠”...토마스 “셋! 노코멘트”

별들이 말하는 'CJ컵'의 향방은?

전 세계 필드를 주름잡는 최고의 별들이 출격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저마다의 각오를 안고 삼다도를 찾은 이들은 정상급 기량다운 입담을 뽐내며 우승 야망을 드러냈다.

‘디펜딩 챔피언’ 브룩스 캡카(29)와 ‘초대 우승자’ 저스틴 토마스(26)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필 미켈슨(49·이상 미국)은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나인브릿지에서 진행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나인브릿지(총상금 975만 달러)·약



캡카 토마스 미켈슨

115억 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 각오와 한국 방문 소감 등을 밝혔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가 된 캡카는 “제주도는 내가 세계랭킹 1위로 오른 곳이다. 특히 올해는 동생(제이슨 캡카)

과 함께 방문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타이틀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릎 부상이 있었지만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은 캡카와 달리 2017년 초대 우승자인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이 대회를 내다봤다. 역대 챔피언들이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는 질문을 듣고는 “나는 내 개인적인 목표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 솔직히 우승 예측 질문에는 대답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와 캡카가 모두 마지막 날 18번 홀에서 함께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슬며시 웃었다.

처음으로 삼다도를 찾은 미켈슨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50여 가까운 나이임에도 여전히 아들뻘 후배들과 우승 경쟁을 펼치는 미켈슨은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했다. 소식을 하고 집에서 하루 2번 꾸준히 운동을 하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노장의 생존 비결을 밝혔다. 이어 “클럽나인브릿지는 아이언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내 아이언샷이 여전히 강한 만큼 나와 궁합이 잘 맞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15일 공식 연습일과 16일 프로암을 모두 소화한 78명의 정상급 프로골퍼들은 17일부터 나올 것 탈락 없이 하나뿐인 트로피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서귀포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뉴시스 권혁진 기자, 3분기 체육기자상

한국체육기자연맹은 2019년 3분기 체육기자상을 16일 발표했다. 보도부문에 뉴시스 권혁진 기자가 7월 15일 쓴 ‘광주세계수영, KOREA 적힌 운동복도 못 받은 대표선수’와 TV조선 박상준 기자가 9월 4일 보도한 ‘최인철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수 상습 폭행·폭언’이 선정됐다. 기획부문에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격주로 게재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함께 땀이다 넘버원 스포츠’, JTBC의 ‘후쿠시마 식자재 쓴 식단? 도쿄올림픽 E42 공포’, 일본의 계속된 홍보에도 외신들 방사는 올림픽 우려’ 연속 기획이 뽑혔다. 2019년 3분기 체육기자상 시상식은 2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최용석 기자